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한용운 정신 계승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만해정신 계승
- III.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민중불교와 만해
- IV. 결어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153-178.

한글요약

이 논고는 만해 한용운의 정신과 사상을 추모하고 계승하고 있는 단체를 연구하는 일환이다. 지금까지 한용운의 생애, 사상, 문학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지만 만해를 추모하고, 계승한 단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필자는 만해를 추모하고, 계승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연구도 만해학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만해와 연고가 있는 개인을 연구하여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해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이 글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주목하였다. 첫째, 한용운 전집의 발간 직후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추진한 만해 정신 추모, 계승의 내용을 살핀다. 둘째,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추진한 한용운 전집의 보급 운동의 개요, 성격을 정리한다. 셋째, 1975년 직후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민중불교운동의 시작과 한용운 사상과의 관련을 정리한다.

이 글이 만해학의 확장,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연구, 민중불교 이해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용운, 『한용운 전집』,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민중불교, 전보삼, 전제성.

I. 서언

만해 한용운이 입적한(1944.6.29) 이후, 만해가 근대 한국의 지성인, 독립운동가, 시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적 영웅으로 인식된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는 우선 만해의 역사적 행적이 뚜렷한 표상을 이루었던 것을 거론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만해 추모 활동을 하였던 다양한 대상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추모·계승하였던 개인, 단체, 기관은 전국에 산재하여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만해학의 심화를 위해서는 만해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만해 정신을 추모하고 계승의 활동을 하였던 각 단체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단체로 대한불교청년회(1920),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1963), 만해사상실천선양회(1996)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으로 약칭)의 한용운 정신 계승에 대한 제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필자는 수년 전 대불련의 창립과 구도부, 봉은사 대학생수도원(1965~1971)에 대한 논고를 발표하였다.¹⁾ 그리고 대불련 구도부와 김룡사에 주석(1965~1966)하였던 성철과의 인연을 정리한 논고를 발표하였다.²⁾ 이런 연고로 대불련 출범 초기의 역사적 흐름은 파악하였으나, 이 글의 주제인 대불련의 만해정신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만해사상의 계보학이라는 탐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만해사상의 계승을 위해 활동한 단체들의 개요도 정리하겠다는 연구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필자는 최근, 『한용운 전집』 발간(1973)의 개요를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하는 글을 발표하였다.³⁾ 그 글을 준비하면서 『한용운 전집』이 나온 직후 대불련이 만해정신의 계승 사업에 나섰음을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 고찰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김광식,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도원」,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4.

2) 김광식, 「성철의 꿈과 김룡사 운달산 법회(1966)」, 『대각사상』 33집, 2020.

3) 김광식,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 『만해학보』 17호, 2017.

이런 배경에서 나온 본 고찰이 대불련의 역사성, 만해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의 이해, 만해의 신비화·영웅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진한 점은 지속적인 탐구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II.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만해정신 계승

대불련은 1963년 9월 22일에 출범하였는데, 대불련은 만해 한용운에 대해서 언제부터 주목하였는가? 『한용운 전집』이 신구문화사에서 출간된 시점은 1973년 7월 25일이었다. 요컨대 『한용운 전집』이 출간되기 이전인가, 아니면 이후인가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필자는 『한용운 전집』이 출간되기 5개월 전, 『대한불교』 1973년 2월 25일 1면에 광고된 ‘萬海 韓龍雲 禪師 동상 건립 취지문’을 접하고 이 글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 취지문은 대불련에서 광고한 글이다. 이 글에서 대불련의 만해의 인식, 계승, 사업에 대한 단초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 전문을 제시한다.

萬海 韓龍雲 禪師!

그를 가리켜 우리는 近代 韓國의 가장 偉大한 先導者라 부른다.

그는 一介 風流詩人이 아니라 차라리 人間 精神의 超絶한 發顯者자요, 一介 僧侶가 아니라 佛陀思想의 가장 透徹한 實踐家였으며, 一介 思想家였다기 보다는 民族良心의 가장 우람한 具現者였은즉, 이 思想과 行動의 一體로서 그는 迷妄한 近代 韓國의 가장 옳은 路線을 가장 옳게 금그어 나간 하나의 指標로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뛰어난 思想家는 가졌으며 行動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또 폐기찬 革命歌는 있으나 그 思想의 根底가 없었던 불행한 우리 近代史의 한 모퉁이에 萬海 한용운 선사를 發見하는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뛰어난 思想에 따르는 과감한 行動이며 또한 그 행동이 빚어내는 思想의 깊이에 그 要因이 있는 것이니 이제야말로 우리의 보람을 거기 심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는 詩를 쓰되 永遠로 逃避하지 않았으며 그는 念佛을 하되 自家의 祈福을 위할 줄 몰랐다. 그는 民衆運動을 꾀되 결코 自利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필경 그의 詩集 님의 沈默한 권은 불붙는 靈魂의 몸부림이었다. 그의 불교는 山間佛敎 아닌 朝鮮의 大衆佛敎였으며 그의 新幹會 卍黨에서의 리더쉽은 歷史 正義에 立脚한 넓은 世界로의 발돋움이었다. 이렇게 용해되고 성숙한 詩와 認識의 발전은 마침내 世界

성과 民族性을 현실이라는 바탕 위에 아울러 정립한 것이니, 그것은 그의 思想이나 行動이 모두 日帝의 질곡 아래 허덕이는 民族的 現實의 나아갈 길을 그가 몸소 한 발 앞서 보여준 것이다.

그가 이 땅에 生命을 영위하기 六六年 어느 하루 權力과 日帝에 빌붙은 적이 있었던가 어느 하루 민족과 衆生의 앞날을 헤아리지 아니한 날 있었으랴 그는 當代 退嬰의인 氣風이 시킨 「나 혼자만」의 安逸을 粉碎하고 거기 뒹친 西歐 중심의 풍조가 시킨 「나」의 고립성을 止揚하였다. 그렇다고 他者 속에다가 自我를 함몰하는 虛無主義에 빠짐이 없이 실로 이웃을 살리므로써 비로소 나를 살리는 佛陀의 慈悲行을 그대로 구현하였다. 항상 그는 民族과 衆生을 위해서는 地獄도 不辭하는 氣概가 이 또한 민족 중생과 나를 함께 지옥에서 건지는 自他不二의 드높은 차원의 경지를 실현한 것이다.

그의 思想의 偉大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 그것은 행동의 결여가 자아내는 閉塞性에서 사상의 건전성을 옹호하고 무기력한 사상의 疏外感에서 그 퇴폐성을 배제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니 실로 그가 몸소 걸어 온 慈悲行의 六十 全年은 그대로가 형극의 가시밭길 일지언정 그것은 바로 민족 중생이 그 指導者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活路였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祖國 近代化의 가치가 더 높히 휘날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行動해야 할 것인가 自問할 때 歷史가 가르치는 바에 充實할수록 萬海 韓龍雲 禪師를 따라야 한다는 結論에 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님은 一九四四年 祖國 光復을 한 해 남겨두고 涅槃에 드셨으니 우리가 어려울 때 님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드높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뜻을 모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忘憂里의 墓所를 옮기고 쇠를 깎아 禪師의 立像을 세우고자 함이니 이로써 민족의 崇仰을 한 곳에 모두 그 雄志를 永遠의 指標로서 세워 길이 後世에 전하고자 함이라 地下에 계신 禪師의 魂魄도 그때 비로소 오천만 生靈을 위해 狄狄하실지니 모름지기 江湖諸賢의 左祖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 적

가치 정립의 혼돈 속에 생명을 초극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얼을 기림과 그의 구세의 사명 의식을 이 사회에 널리 퍼서 새 역사의 민족정기를 바르게 잡아 그 움직임을 민족 영원의 지표로 삼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업 내 용

1. 묘지 이장(망우리 공동묘지의 묘소를 안온한 곳에 봉안한다)

2. 동상 건립(민족의 숭앙을 한 곳에 모두 그 응지를 영원의 지표로 세워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3. 심우장 보존(생존에 기거하시던 심우장을 복원하여 보존한다)
 4. 기념관 건립(유물과 유적을 안장하고 후세의 학도들이 그분의 뜻을 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한다)
 5. 장학재단 설립
- * 1973년도에는 동상 건립과 묘지 이장을 1차년도 사업 목표로 추진한다.

1973년 2월 22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만해 한용운 선사 기념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위와 같은 장문의 글에서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불련에서 만해 한용운에 대한 이해, 평가가 대단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인식은 영웅적인 가치이었다. 둘째, 만해 정신에 대한 계승의식에서 나온 기념사업은 다양하였다. 그는 묘지 이장, 동상 건립, 심우장 보존, 기념관 건립, 장학재단 설립이었다. 이렇듯 대불련의 만해사업은 만해 기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이었다. 셋째, 1973년 대불련의 만해사업은 동상 건립, 묘지 이장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면서도 묘지 이장의 문제는 만해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동상 건립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대불련의 만해 사업을 대학생 신분에서 결정한 결단, 의지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대불련에서 만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단을 한 배경, 동기에 대해 살피겠다. 이 광고가 게재되기 20일 전인 1973년 2월 8~11일, 대불련은 제10년차 대표자 총회 및 지부장 회의를 진주 연화사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신입 회장단을 선출하고, 1972년의 사업 결산을 통과시키면서 만해 사업을 결정하였다. 당시 그를 보도한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11일 대회 최종일에는 衿海스님 동상 건립 추진 취지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 11년차를 위한 지부장 회의를 갖었다.⁴⁾

즉 이 대회에서 만해 동상 건립을 위한 취지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취지문과 결의문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는 위의 만해사업

4) 『대한불교』 1973.2.18, 「제10년차 代表者總會 支部長 회의」.

을 광고한 『대한불교』의 광고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을 한 대불련 집행부는 1973년 2월 22일 만해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조계종단의 기관지인 『대한불교』에 만해동상 건립 추진의 취지를 광고문을 통해 널리 알렸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만해 사업을 결의한 집행부는 회장 성기태(동국대 3), 부회장 손동화(영남대 2)·김광복(전남대 2)이었고, 대의원회 의장 전보삼(한양대 3)·부 의장 백효흠(진주농대 3)이었다. 추측하건대 이와 같은 집행부가 만해사업을 결정하였다면, 이들 집행부 구성원의 만해 인식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추측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았다. 그러다가 1972년 10월 7~9일, 대불련의 靑蓮祭에서 만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발언이 있었음을 접하였다.⁵⁾ 그 행사는 풍전 호텔 삼보회관, 동국대 등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 전보삼(한양대)은 ‘만해 한용운선사의 민족주의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연구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조계사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전보삼의 발의로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치된 만해 묘소를 국립묘지로의 이관 추진을 결의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불련은 1972년 10월, 만해사업(묘지 이전)을 처음으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돌발적인 발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발의를 한 전보삼은 그 다음해인 1973년 2월, 대불련의 대의원회 의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만해사업을 신임 대불련 집행부에 설명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불련의 정식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하여튼 1972년 10월 이전, 대불련 내에서 만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불련이 만해묘지를 이전하자는 제안은 대불련에서의 만해에 대한 최초 논의이었다. 대불련은 1963년 출범 이래, 순수불교 및 신행불교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1970년 3월, 탑골공원에 만해 비석이 건립된 것은 대불련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은 주었을 것이다. 대불련은 1971년 6월 30일에 『大學佛聯報』 1호를 발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반을 모색하였다.⁶⁾ 그 1호에 의하면 대불련의 이념 및 활동, 그리고 조직과 운영을 살피면서 민족양심 세력으로서의 대승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서 1972년 7월, 대불련은 제1차 화랑대회(무주)를 개최하면서 ‘한국 청년의 새로운 정신적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역사관

5) 『대한불교』 1972.10.15, 「大學佛聯 靑蓮祭 盛況; 萬海幽宅, 國立墓地 移轉 추진도」.

6) 8면으로 나왔는데 발행인은 대불련 회장 이병걸이고, 편집인은 임동주이었다.

확립, 민족정신, 종교적 각성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랑의 현대적 의미, 불교도의 사회적 역할, 대학생 불교인의 인간상에 대한 연구 발표회도 가졌다.⁷⁾

이런 흐름에서 나온 정서와 전보삼의 제안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불련을 지도하였던 간사장인 이용부의 만해 인식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용부는 동국대 재학 시 대불련 구도부에 가입하였다. 그는 1965년 7월 구도부의 선지식 순례 도중에 통도사에서 경봉을 만났는데, 그때 경봉의 만해에 대한 인식을 강렬하게 수용하였다.⁸⁾ 이용부는 1972~73년 대불련의 간사장을 맡았다.⁹⁾ 바로 이때 성기태는 대불련의 총무부장을 거쳐 1973년에 대불련 회장이 되었다. 그래서 성기태가 만해 사업을 결정한 것에는 이용부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전보삼과 이용부의 만해 인식이 대불련 만해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대불련은 동상 건립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였는가. 동상의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대불련은 1973년 6월 8일, 만해 30주기 행사를 조계사에서 유족(딸, 한영숙)을 모시고 거행하였다.¹⁰⁾ 이때에는 동상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동상 건립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 그해 1973년 6월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대불련 서울지부 회의 상황에서 그 단면을 찾을 수 있다.¹¹⁾ 즉 서울지부 회

7) 대불련, 『화랑대회 행사 개요 팸플리트』, 1972.; 『대한불교』 1972.7.30, p.4, 「공고 ; 화랑대회」; 『대한불교』 1972.8.2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랑대행진 대회」.

8) 『대한불교』 1965.8.29(1회), 9.5(2회) 「구도행각기」. 경봉은 자신을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만해의 업적을 전하면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공동묘지에 비석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개탄하였다. 그러면서 경봉은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만해 기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런 당부에 영향을 받은 이용부는 후일, 만해동상 건립 사업에 나섰다. 그 때 동행한 김선근은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삼소굴 법향』, 통도사 극락암, 2020, p.399.

9) 『화랑대회 자료집』, 1972, p.5에 총무간사로 나온다.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 진리의 벗얼빛』, 대불련 50주년기념사업회, 2013, p.259에 「역대 회장단 및 지도기구 책임자」가 나온다. 이용부는 1972~73년의 책임자로 나온다.

10) 『대한불교』 1973.6.17, p.3, 「韓國大學生 佛教연합회, 萬海禪師 30週 추도식 엄수」. 추도식 직후, 김관호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아침 한양대 불교학생회는 만해 묘소를 참배하였고 대불련 간부는 답골공원의 만해 비석에 헌화를 했다.

11) 『대한불교』 1973.7.1, p.1, 「花郎大會 행사 논의, 대불련 서울지부, 만해동상 건립기금 모금도」.

의에서 학생들은 만해 제자인 김관호의 강연을 듣고, 만해전집을 판매하고, 그를 동상건립 기금으로 하지는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대한불교』 1973년 7월 8일의 광고에 나온다. 즉 곧 출간되는 『한용운전집』의 보급을 대불련이 담당할 것인데, 그 판매 수입금의 일부가 만해동상 건립 기금임을 공개한 것이다. 그 광고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普及案内

본 한용운 전집은 그 분의 동상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약 기간 : 7월 15일 한

예약 특가 : 월부 12,000원

현 금 : 10,000원

예약 접수처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 각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진주, 대전, 제주, 예산, 삼척, 마산, 안동, 충주, 공주, 이리)

서울 접수처 : 韓國大學生佛敎聯合會 만해 한용운 선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전화 : 72 - 1918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보급 운동에 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이전, 대불련 내부에서 이런 추진을 하기로 결정한 내용, 그리고 대불련과 『한용운 전집』을 출간한 출판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마침내 『한용운전집』이 1973년 7월 25일에 출간되었다. 그러자 바로 『대한불교』(1973.8.5)에 『한용운전집』 출간 및 할부 구입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 광고의 좌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연합회인 여러분

본 회에서는 한용운 선사의 묘지 이장 및 동상 건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회원 한질 보급운동을 벌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호제현의 협조를 바랍니다.

韓國大學生佛敎聯合會
萬海 韓龍雲禪師 銅像建立委員會

이와 같이 광고 문안에는 『한용운전집』을 판매, 보급하여 만해의 묘지 이장

및 동상 건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나온다. 그러면서 대불련에서는 ‘한 회원 한질 보급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광고의 우측에는 구독 요령이 나와 있다. 그는 현금 예약 특가(12,000원), 5개월 할부 주문(15,000원), 신청 장소(서울 풍전상가 2층 239호, 대불련 및 동상건립 추진위), 전화 신청이 나와 있다. 그 하단에는 구독신청서가 상세하게 나온다. 대불련은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해를 홍보하는 『만해 한용운 선사, 그 雄志를 永遠의 指標로 삼자』라는 소책자도 만들었다.¹²⁾

이와같이 대불련은 동상 건립 기금 모금 운동의 차원에서 『한용운 전집』 보급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¹³⁾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몇질이나 판매하였는가. 대불련의 이 운동은 회원들의 호응을 받아 초반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1973년 7월 22일의 『대한불교』의 「화제 ; 衞海스님 동상 건립을 위한 「한용운 전집」 예약받아」의 기사에 의하면 3290질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800질을 예약받았다고 하였다.¹⁴⁾ 『한용운 전집』이 출간되기도 전에 이런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는 전국적인 지부 조직에서의 정열적인 활동, 서울에서 50여명의 가두 판매 등에 힘입은 결과이었다.

그리고 1973년 10월 6~8일, 청련제 행사를 삼보회관에서 하였는데 그 행사에 만해동상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만해의 밤(중앙대 주최) 개최, 만해선사 시화전(19점), 강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만해동상의 추진 공로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그 대상자는 전보삼(한양대), 소광석(공주사대), 백효흠(대의원회 부회장)이었다.¹⁵⁾

여기에서 당시의 보급에 관련을 맺은 전보삼(만해기념관 관장)의 증언을 제시하겠다. 그는 자신이 대불련의 판매 총판을 맡았다고 회고하였다.

신구(필자 주, 신구문화사)에서 날 보고 불교계에 책을 파는 총판 조직을 맡아서

12) 여러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전보삼은 자신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13) 백효흠, 원유나 등은 만해 접집 판매를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14) 그 기사에는 만해보소 이전 비용은 150만원, 동상 건립비용은 5,043,300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3290질을 목표로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전보삼은 2000질을 판매하였다는 발언도 하였다.

15) 『대한불교』 1973.10.14, p.3, 「大學生佛敎연합회 創立10周 靑蓮祭 모두 마쳐」. 기사에는 백효윤으로 나오나, 백효흠으로 수정했다.

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누구 보증인으로 세우래요. 그래 대불련 지도교수인 홍정식 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홍교수가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신구문화사와 홍교수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힘을 얻기 위해 조계사에 가서 108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책을 팔러 다녔지요.

그렇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만해를 알아야 책을 사니까 대불련 조직을 이용해서 전국 각지에서 만해특강, 강연을 시켰어요. 그때에 탄허스님도 강의를 하셨어요. 내가 그럴때에 강사를 섭외하고 그랬는데, 통도사의 경봉스님이 나서주겠다, 날 보고 기특하다고 그러시면서 경남지방은 당신이 맡아 주시고 그랬어요. ... 중략 ...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가 주관해서 강연회를 하면 내가 가서 책을 팔고는 그 5%는 지역별·지부별 불교학생회 발전 기금으로 떼어 주었지요.¹⁶⁾

대불련 지도교수이었던 홍정식(동국대) 교수의 보증으로 서울 청진동에 출판 보급소를 차렸다는 것이다.¹⁷⁾ 그는 스님들의(탄허, 경봉) 도움을 받아 판매하였다고 회고한다. 전보삼의 그 활동은 공적인 영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⁸⁾ 전보삼은 1973년 가을부터 전국에 있는 대불련 회원들이 더욱더 집중적, 정열적으로 판매 보급 운동을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렇다면 대불련 차원에서 보급한 실적은 어떠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대불련의 회원이었던 김연호(1972 학번, 진주 경상대)가 대불련 동문회에 기고한(2011년) 글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한용운동상 건립기금 1974년 당시 대충 1천 6백만원 수입금이 적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73년 저는 진주에서 한용운 전집을 46질을 팔았습니다. 그때의 고생과 창피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수입금이 1974년 들어 분명치를 앓았습니다. 당시 전 경남지부장 자격으로 청주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회의에서 이를 따졌으나 당시 중앙회장이던 윤세원 회장은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공식 반응이었습니다.¹⁹⁾

16) 김광식, 『방산굴의 무영수』 하권, 월정사, 2013, pp.132-133.

17)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 구술자료관의 전보삼 구술.

18) 전보삼이 맺은 그 계약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19) 대불련총동문회(인터넷), 2011년 1월 27일, 자유기고문, 홍경의 「선배님들... 궁급합니다」 참조.

즉 그를 요약하면 대불련이 『한용운전집』을 판매한 당시 금액으로 1974년에는 1,600만원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근거(문헌)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모은 기금으로 동상 건립을 착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상 건립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다. 여러 정황상 그 기금액은 동상 건립기금으로 충당되지 않았다. 어떤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즉 동상 건립은 시도되지 않았다. 필자는 대불련의 1974년도 관련 문건, 보도기사와 대불련 출신들의 증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만해 동상 건립에 대한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불련의 만해 동상 건립 사업은 대불련의 정체성 정비, 회원들의 만해 인식의 공유, 만해정신의 파급을 추동하였다.

III.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민중불교와 만해

대불련에서의 만해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초반에 잠시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사라져 갔다. 이는 만해정신을 대체하여 민중불교가 대불련의 이념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 흐름을 유의하면서 그에 관련된 문건 기록을 제시하겠다.

대불련의 역사에서 민중불교가 등장한 것은 1975년이였다. 1975년 2월 5~9일, 대불련은 13년차 전국지도자 수련대회를 통도사에서 개최하였다.²⁰⁾ 그 회의의 발원문에서 민중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지나온 대불련의 가치관은 깊은 현실적 제약의 매너리즘 속에서 방황하여 왔다. 단일한 현실주의는 이 외의 모든 길에 대한 절망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 (중략) ... 석존의 선정과 지혜가 시대조류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결과를 불러 온다면 민중을 상실하게 되고 생명력이 없는 형해화의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사회 민중의 의식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확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제기된다. ... (중략) ... 이 자리에서 우리 大學生 佛子들은 正見을 이루고 사회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기에 발원합니다.

길에서 태어나서 평생 길을 가르키다 길에서 돌아가신 부처님이시여! 佛子들은

20) 『대한불교』 1975.2.23, 「全國대의원대회, 大佛聯 5日동안 세미나 등 갖고」.

부처님을 市井의 거리에서 親見하고자 발원하옵니다.

첫째, 본래 님의 모습과 한 모습임을 확신하는 우리 佛子들은 민중 속에서 민중을 위한 如來 구현에 앞장서게 하여지이다.

둘째, 님의 진리를 따르고 님의 일을 생명으로 삼는 우리 佛子는 同業을 짓는 共同運命體로서 社會正義 實現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지이다.

셋째, 佛國土 建設의 위대한 理想社會를 제시한 님의 行願에 고개 숙이는 민중운동의 실천적 展開 속에서 自我 확립이 되어지게 하여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1975. 2. 9²¹⁾

이와 같은 발원문에서 민중불교에 대한 관심, 주목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대불련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당시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는 민중운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었다. 이와 같은 민중불교에 대한 의식은 그 당시 대불련 회장인 전재성(서울대)이 기고한 글인 ‘중앙본부의 출범을 하면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내용 중에서 민중불교 연관된 것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본부의 출범을 하면서

大佛聯의 보살도적인 出帆은 그동안 形骸化의 不條理 속에서도 장대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宇宙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가슴에 안고 哲理의 큰 나라인 佛敎는 民衆, 衆生을 위한 時代의 公道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지역에 化身이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 (중략) ... 자비의 손길로 좀더 실질적인 민중 속에 파고드는 佛敎運動을 실천하고 그 漸進的인 활동을 전개해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個我的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歷史的 狀況 하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단합으로 실천적인 전개를 해 나가고 우리의 비전 - 불국토 건설 - 에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에 넘치는 佛恩을 입고 부끄러운 우리는 苦難의 운명체로써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장 全在星 合掌

이와 같은 대불련 전재성 회장의 발언에서도 민중불교에 대한 대불련의 노선

21) 『大佛聯報』 7호, 1975, pp.6-7.

을 찾을 수 있다. 전재성은 민청학련(1974) 관련자로 투옥 경험이 있었다.²²⁾ 그는 대불련의 기존 행보를 부조리 했다고 보고, 민중속으로 파고드는 불교운동을 실천하자고 강조하였다.

대불련 회장과 대불련 간부들이 민중불교를 이와같이 적극 수용한 인식은 기존 대불련의 행보로 볼 때 혁명적인 변화이다. 그러면 1975년의 대불련은 위에서 결정한 민중불교의 행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는가?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추진을 위한 행보는 갔으나 결정적인 사업(성과)은 없었다.

대불련 집행부는 1975년 4월 19일, 서울 수유리의 4·19묘소를 참배하였다.²³⁾ 본부 임원 12명이 참가한²⁴⁾ 그 추념식은 적지않은 파장을 야기하면서 대불련의 노선 변화를 암시하였다. 대불련은 1975년 6월 14~15일, 춘천에서 지부장 회의를 열고 8월 경주에서 ‘민족과 화랑정신’이라는 주제로 화랑대회를 열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10월의 청년제에서는 ‘청년운동과 민중불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의 개최를 정하였다.²⁵⁾ 그러나 대불련은 관행적인 전체 수련대회(화랑대회)를 열지 못했다. 그 대신 지부별의 수련회를 열었지만, 그 내용에 민중불교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²⁶⁾ 대불련이 그런 행보를 가지 못한 것에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1975년 5월 13일에 나온 긴급조치 9호로 대불련의 화랑대회는 무산되었다.²⁷⁾ 그러자 대불련의 중앙 집행부는 연구조사국이 주최가 되어 실시한 민중에 대한 양케이트 조사를 청년제에서 발표하기로 정했다. 즉 대불련의 창립 행사인 청년제를 그해 10월에 조계사에서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장인 전재성은 배제된 상태였고,²⁸⁾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리지도 못하였다. 그러자 대불련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서울 외곽인 가평 대성리(유원지)에 가서 비밀리에

22) 1974년 8월 15일 특사로 석방되었다.

23) 1975년 4월 19일, 야당 및 민주화 추진 인사들이 수유리 4.19 묘지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기사에 대불련 학생들의 참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대불련이 독자적으로 추념식을 하였는지는 애매하다.

24) 회장인 전재성은 경찰에 격리되어 불참하였다고 한다.

25) 『대한불교』 1975.6.22, p.1, 「화랑대회 등 논의, 대불련 지부장회의」.

26) 『대한불교』 1975.7.27, p.1, 「젊은 불자들 하계 수련대회」.

27) 일문, 「80년대 민중불교운동에 대한 고찰」, 『석림』 24집, 1990, p.216.

28) 대원암 학습 건으로 경찰에 체포, 방면된 그는 경찰에 의해 격리되었다.

청련제를 개최하였다.²⁹⁾

이와 같은 대불련의 행보는 1975년의 민중불교회와 관련이 있다. 즉 1975년 봄, 개운사의 대원암에서 강백인 탄허의 지도를 받으면서 민중불교(원효, 만해 등)에 대한 학습을 몇 차례³⁰⁾ 하였던 일단의 그룹이 경찰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당시 대원암의 학습자들은 고은, 황석영, 고준환, 여익구, 전재성, 김광하 등이었다.³¹⁾ 이들 중에서 여익구와 전재성은 2개월간 경찰에 구속되었다.³²⁾ 요컨대 대불련 회장이던 전재성이 구속되자, 대불련 사업은 뒤엎졌던 것이다.

여기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주역인 여익구의 회고를 참고하겠다. 1975년 3월, 대원암 학습 모임(민중불교회)은 여익구의 주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여익구는 동국대 사학과 재학중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75년 2월에 석방되었다. 석방 직후, 그는 불교계의 큰스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불교계에 민족 의식 고취에 유의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개운사 대원암에서 『화엄경』 번역을 하고 있었던 탄허를³³⁾ 고준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그 모임을 주도한 나는 처음 시작할 때에 민중불교회 조직을 만들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민중불교를 공부하자고 그랬고, 우리 모임은 민중불교 공부 모임이라고만 하였지요. 민중불교회를 만들기 위한 회칙은 나하고 전재성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고준환도 참여한 것 같고, 가리방을 굽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민중불교회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요. 그렇지만 그 회칙에 의거해서 정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안기부의 추적, 구속을 받아서 출발은 못했어요. ... (중략) ... 내가 그 모임을 하면서 그해 여름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모아 놓고, 탄허스님을 모시고, 황석영과 고은도 부르고, 또 탈춤하는 친구들도 불러서 큰 대회를 하려고 구상을 했어요. 민중불교회의 확산시키기 위해서, 탄허스님을 그 대회의 중심에 놓고서 준비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기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건이 커진 것은 설문지 때문이에요. 설문지

29)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 한국구술자료관의 최연 증언.

30) 전재성은 3~4회로 발언하였다.

31) 이영근, 「여익구 ; 정토사회를 꿈꾼 민중불교운동의 대부」, 『불교평론』 78, 2019, p.165.

32) 여익구, 「나의 스승 탄허스님」, 『봉은』 5호(1992.6), pp.34-35.

33) 탄허는 1974년 2월부터 대원암에서 화엄경 번역, 출간 사업을 하였다. 『대한불교』 1974.3.17, p.3, 「교계동정, 탄허스님 동대 대학선원장」.

라는 것은 내가 대불련 회장을 하던 전재성을 통해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시켰어요. 대불련 조직에서 설문지를 통해 불교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불교운동의 기초를 삼고, 민중불교회의 방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설문지는 스님들의 의식과 일반 대중의 의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대학생들이 그 설문지를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기부에서는 그것을 확증으로, 증거자료로 삼아서 우리를 구속시켰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안기부에서는 민중불교회와 기독교의 모임을 합쳐서 제2의 민청 사건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어요.³⁴⁾

위와 같은 여익구 증언에 나오듯, 전재성은 대원암에서의 민중불교 학습 사건에 연루되었다. 여익구와 전재성은 대불련의 화랑대회에서 민중불교의 홍보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사전 탐지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래서 여익구는 1975년 6월,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8월에 풀려났다. 전재성도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의 구속 기간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여익구와 같았다고 전재성은 회고했다. 이런 비사가 있었기에 1975년 대불련 화랑대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런 구도하에서 대불련은 연구조사국(국장, 이헌주)을 중심으로 중앙 간부진과 지방의 회원들이 7~8회의 토론회를 갖고 민중불교로 가기 위한 앙케이트 조사를 준비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각 지회에 보내서 여론방학에 조사를 하여 대불련 본부에서 회수하고, 그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행사를 준비하였다. 그해 8월 10일부터 3개조에 진행된 앙케이트의 작성, 회수 작업은³⁵⁾ 각 지부에서의 움직임으로 인해 공권력의 감시망에 탐지되었다. 그래서 그 관련자인 대불련 간부진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2~3일 조사를 받고 풀려나왔다. 대불련 집행부는 설문조사의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그해 10월의 청런제(조계사)에 발표하려다가 무산되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대불련의 민중불교에 대한 행보는 1976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대불련은 1976년 8월 12~17일, 전북 완주의 송광사에서³⁶⁾ 제4차 화랑대회를 개최하였다.

34) 여익구, 「나의 불교운동의 지주」, 『방상굴의 무영수』 하권, 오대산 월정사, 2013, pp.343-344.

35) 『대한불교』 1975.8.31, p.3, 「불교에 대한 意識 진단, 대불련 좌표 설정위해 앙케이트」. 이 기사에는 일반 민중의 불교에 대한 의식을 진단하여 대불련의 좌표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대불련 회장인 최연(중앙대)은 전재성 부재시 대불련을 이끌던 핵심으로 화랑대회를 준비하였다. 그는 1975년 대원암 민중불교 학습에도 간간이 참여하였던 이력이 있었다. 그는 대불련의 연구조사국을 통하여 행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제4차 화랑대회의 주제는 「民衆佛敎運動 - 實現을 爲한 前進大會」이었다. 이런 주제에 나오듯 대회는 민중불교의 구현, 실천을 위한 대회이었다. 이는 당시 대회의 자료집에 나오는 대회 목적과 회장의 발언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대회 목적을 제시한다.

제4차 화랑대회 목적

한민족의 맥락 속에 고고히 흐르고 있는 민족정신을 발굴하고 또한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화랑대회가 이제 4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제4차 화랑대회는 민족정신의 지속적 계승의 일익을 담당하고 그동안 민족사의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항상 민족 자존의 투쟁 대열의 선봉에 섰던 민중을 현대적으로 설정하여 민중들의 의식 깊이 내재되어 있는 민족정신의 참 의미를 계승함과 아울러 맥맥히 이어오는 대불련 운동의 대상의 공통 지향심을 설정하여 연합의식 고취로 지향을 본 4차 대회의 목적으로 합니다.³⁷⁾

여기에서 나오듯이 민중을 현대적으로 설정하여, 그를 민족정신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나온다. 즉 민중불교를 대불련 운동의 지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불련 회장인 최연의 발언의 일부를 제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宗教란 個人的 場인 ‘社會’라는 곳으로 表出 확산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社會의 場’을 構成하는 主된 構成員인 民衆을 現代의으로 파악하여 實踐하는 大佛聯像의 定立을 爲한 民衆佛敎運動을 社會的 宗教的 次元에서 확산 발전 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³⁸⁾

최연의 발언도 민중불교운동을 대불련의 정체성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는

36) 간혹 전남 송광사에서 열렸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행사는 완주 송광사 인근, 전북 소양 캠프장에서 열렸다.

37) 대불련, 『제4차 花郎大會 敎材 1』, 1976, p.2.

38) 위의 자료, p.3.

내용이다. 요컨대 1976년 대불련은 화랑대회를 민중불교 구현을 위한 무대로 만들었다. 그때 당시 대회에서 발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民衆佛敎”

現代 韓國大學은 佛子의 理想的 座標로서 현상에 安住하거나 나약한 회피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 속에서 현실의 어둠을 내일의 광명으로 이어주는 희망의 창을 발원하는 광장으로 우리의 모임은 출발하여, 지혜 자비를 실현하는 우리의 모든 行願으로 民衆佛敎의 기치를 내세운다.

하나의 허울좋은 구호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에 귀의하는 信心의 內容으로 부처님을 보는 눈으로 부처님을 나타내는 行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民衆佛敎에 투합시키게 한다. 이에 우리의 모든 知慧로 民衆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意味化 하여 오늘의 고난을 진행한다.

- 民衆佛敎 運動 緒論 : 전재성(13년차 회장)
- 民衆佛敎 運動 理論
- 佛敎의 社會性和 民衆佛敎 : 김유철(서울 인문대 4)
- 民衆佛敎 運動論 : 이현주(13년차 연구조사국장)
- 民衆佛敎 運動의 실제
- 艮海에 있어서의 民衆佛敎 : 전보삼(9년차 대의원회 의장)
- 韓國 社會에 있어서의 民衆佛敎 運動 : 배춘상(전남대 의대 본3)
- 대학생 불자의 民衆佛敎論³⁹⁾ : 최주홍(부산공대 3)⁴⁰⁾

이상과 같은 내용이 대회에서 발표되었다고 당시 『대한불교』에 보도되었다.⁴¹⁾ 그런데 대회에서는 전재성의 「민중불교운동 서론」만 발표되었고, 여타의 주제는 발표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4차 화랑대회도 원만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의 전재성 씨의 글만이 발표되고 지도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나머지 원고는 발표도 못하고 소각되었다.⁴²⁾

39) 황주홍이 준비한 제목은 「주제 ; 대불련의 민중불교운동 제목 ; 화랑도 정신으로 민중불교운동에 앞장서자」이다. 필자는 그 당시 발제문(가리방)의 사본을 입수하였다.

40) 위의 대불련 자료(1976), p.8.

41) 『대한불교』 1976.8.22, 「화랑정신으로 민족중흥 다짐, 민중불교운동을 주제로」.

42) 유지오, 「인맥 - 조직으로 본 민중불교운동 15년사」, 『대한불교』 1991년 8월호, p.37.

이처럼 전재성의 글은 분명하게 맨 처음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제는 발표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⁴³⁾ 이는 더욱 확인할 내용이다.⁴⁴⁾ 필자는 당시 그 행사를 주관한 최연을 인터뷰하여 진행의 사정을 확인하였다. 그때 대불련의 간부진은 발제 주제를 지도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⁴⁵⁾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제가 민중불교라는 것을 행사 도중에 알게 된 교수진(송석구, 목정배, 김구상 등)의 반대로 발표는 중단되고 험악한 상황이 노정되었던 것이다.⁴⁶⁾

후일 전재성은 자신의 그 원고를 확장하여 『월간 대화』(1977년 10월호)에 전서암이라는 필명으로 「民衆佛敎論 - 한국불교의 민중성 회복을 위하여」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다.⁴⁷⁾ 전재성은 자신의 그 글은 ‘불교의 민중화’를 주장했던 한용운의 용어를 빌어서 민중불교를 주장한 것이라 했다.⁴⁸⁾ 필자가 추측하건대 전재성은 『한용운전집』(1973) 1권의 132면에 수록된 글, 「佛敎維新會 - 불교의自治와 新活動의 필요」의 내용을 보고 만해의 민중불교론을 정립한 것이라 보인다. 이 글의 중간에는 교리의 민중화, 제도의 민중화, 재산의 민중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 만해의 강력한 이미지를 고려하여 이 글도 만해가 썼다고 단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만해 글이 아니다. 그 글은 『동아일보』 1921년 12월 16일자의 社說이었다. 그 사설에는 기명자가 없으며, 당시 만해는 3·1운동의 주역으로 감옥(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감옥에 있었던 만해가 어떻게 사설을 썼다고 볼 수 있는가. 조선불교유신회는 1921년 12월 10일경에 발기되었고, 만해

43) 전재성 이외의 글, 모두가 발표되지 않았는지, 혹은 1~2개는 발표되었는지는 추후 철저히 조사 되어야 한다.

44) 전재성은 배춘상과 전보삼은 발표한 것처럼 회고하였다.

45) 『대한불교』 1976.8.8, 「4차화랑대회」 참고, 이 보도기사에는 민중불교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다.

46) 최연의 증언에 의하면, 교수들이 민중불교의 교재를 회수하여 소각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3~4부만 회수하여 불태우는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북지부의 학생들과 교수들간의 대립이 심하였다.

47) 그는 『창작과 비평』에 수록하려고 하였으나, 편집진의 난색으로 무산되었다. 전재성은 자신의 글을 지도교수들이 좌익 성향으로 오해하여 문제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다. 전재성은 황석영의 도움으로 『대화』지에 기고하였는데, 당시 『대화』의 편집국장은 송건호이었다. 당시 동국대 교수인 원의범은 그 글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48) 1973년에 출간된 『한용운 전집』을 읽고 만해의 불교유신론,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는 이 사실이 발표되고 나서 6일 후인 그해 12월 22일에 출옥하였음이 『동아일보』 1921년 12월 23일의 보도기사, 「地獄에서 極樂을 救하라... 한용운씨 옥중감상」에 나온다. 요컨대 이 글은 1973년 『한용운전집』(초간본) 편집인들의 착오, 실수에 의해서 수록되었기에, 일반 대중은 당연히 만해의 글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만해는 대중불교론을 주장하였지, 민중불교론을 주장하지는 않았다.⁴⁹⁾ 그리고 『한용운전집』의 2권에 「불교인으로서 만해」를 기고한 조종현은 만해와 인연이 있는⁵⁰⁾ 인물이다. 그는 만해를 1930년대 초반에 만난 이래 만해를 존경하였던 선암사 출신의 승려이었는데, 그는 만해의 불교사상을 ‘대중불교화’라고 서술하였다. 대회에서 전보삼의 「萬海에 있어서의 民衆佛敎」라는 논고가 발표를 위해 준비되었음은 흥미로운 대목이다.⁵¹⁾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대불련은 1975~76년에 집중적으로 민중불교를 대불련의 좌표, 노선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민중불교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만해의 민중불교론도 동시에 검토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던 대불련의 움직임은 민중불교론의 수용, 접목을 위한 소재로 만해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1976년 5월 22~23일, 완주 송광사와 전북대에서 열린 제2회 호남 대학생 불교인대회의 심포지움에서 민중불교와 만해 불교운동이 발표된 것은 흥미롭다.⁵²⁾ 그때 발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박건주(전남대) : 민중불교운동에서의 대학생 불자의 역할

한광수(전북대) : 만해 청년운동과 대불련

49)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용운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김광식,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 『불교학보』 85집, 2018. 그러나 만해의 이념을 불교사회주의로 보려는 연구도 있다. 김종인, 「1920~30년대 불교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대각사상』 18집, 2012, pp.351-352.

50) 김광식, 「조종현의 불교사상과 한용운」, 『불교학보』 75집, 2016. 그의 아들이 장편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이다.

51) 전보삼은 그 대회에서 계급이론으로 민중불교를 보려는 측과 대중불교로 보려는 측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 구술자료관의 전보삼 증언.

52) 『대한불교』 1976.5.30, 「호남 대학생 불교인 대회 성료」. 이때 월주(금산사)의 법문이 있었다.

최연(중앙대, 대불련 회장) : 대불련 활동의 구체적 방안 모색
이정호(목포해양전문학교) : 청년운동과 대학생 불자의 자세 확립

위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지방 불교계에서 자생적으로 민중불교와 만해불교운동이 동시에 검토되었음은 역사적 사실이었다.⁵³⁾ 그리고 1979년 대불련이 송광사(순천)에서 개최한 화랑대회에서는 민중불교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있었다. 즉 대불련 내의 민중불교 노선을 띤 연구조사국(이희선 국장)⁵⁴⁾ 준비한 진보적 행사(강연, 토론)⁵⁵⁾ 집행부 회장(박용환, 국민대)의 반대로 파행되었다. 이에 회장은 연구조사국원을 해임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 진영의 불교학생회(서울대, 동국대)는 대회를 거부하고 철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⁵⁶⁾ 이는 대불련 내에서 기존 민족주의 노선(호국불교, 민족불교, 만해노선)과 민중불교 노선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검토한 일련의 사실에서 대불련은 1970년대 전반기는 만해 한용운의 정신 계승이 뚜렷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민중불교로 경도되는 노선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대불련에서의 민중불교론의 수용은 1980년대 전반기(사원화 운동, 민중불교운동연합 등)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강화되었다.⁵⁷⁾ 대불련에 민중불교가 유입된 것은 그 당시 사회 민주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원화 운동을 주도한 주체들이 동국대에 만해사상연구회(이희선 등)를 만들고, 만해

53) 윤금선, 『6월항쟁과 불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p.25.

54) 당시 연구조사국원은 노일현, 김지형, 이영근, 박상필, 이종철 등이었다.

55) 법정·황석영·임현영·백기완·전제성을 강사로 초빙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 한국불교의 기득권층 옹호성향에 대한 반성, 불자의 자세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연구조사국장이었던 이희선은 황석영과 법정은 강연을 하였지만 백기완과 전제성은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56) 위의 이영근 글, p.170.

57) 『불교신문』 263호(1985),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 대불련 1600년대 금산사 일원서」. 이 기사에는 대불련의 역사, 민중불교 도입, 전개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즉 낭만적 민족주의 - 청년불교운동 - 만해사상연구 운동 - 민중불교운동으로 맥락을 잡고 있다.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당사자인 서동석의 회고가 참고된다. 『불교신문』 2009.3.7~5.2에 10회로 연재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그 실상이 나온다. 서동석은 『불교포커스』의 2010.2.17~2011.1.2에서도 17회로 「민중불교운동에서 만난 사람들」을 연재하였다.

의 ‘불교사회주의’를⁵⁸⁾ 민중불교의 범주로 해석하려는 인식도 있었다는 점이 다.⁵⁹⁾ 그러나 1970년대 전반기 대불련을 주도한 전보삼은 민중불교와는 무관한 만해사상연구회(회장, 김관호)를 1979년 3월에 출범시켰다. 전보삼은 누락된 만해의 자료를 찾아 만해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한용운 전집』의 증보판(1979) 발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⁶⁰⁾ 그는 만해사상연구회를 김관호(만해의 제가 제자)와 함께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신구문화사에 두었다가 1981년도에는 심우장으로 이전하였다.⁶¹⁾ 하여튼 1980년대 대불련의 민중불교에 대한 개요와 성격은 별도의 고찰로 연구하고자 한다.⁶²⁾

IV. 결어

지금껏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만해 한용운의 정신을 어떻게 인식, 구현, 계승하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맺는말은 본문에서 정리한 주요한 내용을 우선 정리하고, 추후 연구할 과제를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우선 필자가 정리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불련에서의 만해 사업은 1973년 2월경부터 구체화 되었다. 그 내용은 묘지 이장, 동상건립, 심우장 보존, 기념관 건립, 장학재단 설립 등이었다.

둘째, 대불련의 만해사업은 묘지 이장과 동상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사업은 동상 건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셋째, 대불련의 이와 같은 사업은 회장인 성기태, 의장인 전보삼, 간사인 이용부의 만해인식의 투철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58) 김광식,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 『불교학보』 85집, 2018.

59) 조성열, 「현대 한국의 실천불교 : 운동과 이념」,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행원, 2002, pp.431-432. 『불교야학연합회 자료집』, 1991, p.23.

60) 김광식,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 『만해학보』 17호, 2017, pp.137-140.

61) 전보삼, 「평상심으로 큰가르침 주신 우리 스님」, 『크신 원력 수미산을 넘어』, 석주 큰스님 문집간행위원회, 2002, p.404. 전보삼, 「북향집 심우장에 만해기념관을 열다」, 『차의 세계』 2020년 1월호.

62) 『보살의 원력을 민족자주의 대열로 ; 제6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 대불련, 1987. 이 자료집 후반부에 민중불교, 대불련 역사에 대한 자료(불교운동론의 이해를 위한 자료 모음)가 수록되어 있다.

넷째, 대불련은 동상 건립 사업의 기금 모금을 위해 『한용운전집』 보급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추진 결과는 전하지 않는다. 1974년에는 모금액이 1600만원에 달하였으나, 본격적인 동상 건립은 추진하지 못하였다. 추후, 추진하지 못한 대불련 내부의 사정은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대불련의 만해 정신의 계승 사업은 1975년부터 서서히 변질되었다. 그 대신 민중불교의 이념을 대불련의 좌표, 노선으로 수용하려는 사업이 1975~1976년에 추진되었다. 전재성, 최연 등 대불련 집행부(간부)가 적극 주도하여 민중불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공권력의 탄압, 보수적인 교수진의 반대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부터 대불련에서의 민중불교 이념은 더욱 확장되어 갔다. 이런 흐름에서 만해의 불교사상은 주목받고, 만해사상연구회가 심우장(김관호, 전보삼)에서 그리고 동국대(김희선)에서 설립·활동 하였음은 역사적 사실로 기억할 내용이다.

지금껏 1970년대 대불련에서의 만해정신 계승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요점을 피력하였다. 추후에는 1980년대의 대불련에서의 만해 및 민중불교의 인식 문제를 검토하는 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는 대불련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 및 평가가 나오기를 당부하는 바이다.⁶³⁾

63) 최철호, 「대불련 운동의 현황과 과제」, 『이념과 목적』, 조계종 총무원·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기획단, 1998; 김남수, 「대학생 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 『불교평론』 13, 2002. 한편 대불련은 50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진리의 벗 얼 빛』(2013)을 펴냈다.

참고문헌

- 김광식,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 『만해학보』 17호, 2017.
- _____,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수도원」,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선인, 2014.
- _____, 「조종현의 불교사상과 한용운」, 『불교학보』 75집, 2016.
- 조성열, 「현대 한국의 실천불교 : 운동과 이념」,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행원, 2002.
- 김남수, 「대학생 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 『불교평론』 13, 2002.
- 김나현, 「1970년대 『창작과 비평』의 한용운론에 담긴 비평 전략」, 『대동문화연구』 79집, 2012.
- 한상길, 「광덕스님의 대학생 전법과 대학생불교연합회」, 『전법학연구』 4집, 2013.
- 대불련,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 50년사』,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 25집, 2013.
- 김익균, 「만해 한용운이라는 기념비」, 『대각사상』 25, 2016.
- 윤금선, 『6월항쟁과 불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 이영근, 「여익구 ; 정토사회를 꿈꾼 민중불교운동의 대부」, 『불교평론』 78, 2019.
- 김종인, 「1920~30년대 불교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대각사상』 18집, 2012.
- _____, 『한용운과 근대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20.

Abstract

Inheritance of the Spirit of Han Yong-un of the Buddhist Feder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im, k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article is part of a study of organizations that memorialize and inherit the spirit and thoughts of Han Yong-un in Manhae. Until now, studies on the life, ideology, and literature of Han Yong-un have been accumulated, but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that has succeeded in commemorating Manhae. I believe that Manhae should be remembered and the research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eir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anhaehak. So, for many years, I have been studying individuals who are related to Manhae. However, from now on, I would like to attempt a study on groups related to Manhae.

In this article under this background, I have noted the following aspects. First, we examine the contents of the Manhae Spirit memorial and succession promoted by the University Buddhist Federation immediatel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Han Yong-un. Second, the outline and character of the movement for dissemina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Han Yong-un promoted by the College Student Buddhism Association are summarized. Thir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beginning of the Minjung Buddhism movement and the thought of Han Yong-un in the University Student Buddhism Association immediately after 1975 is summarized.

We hope that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in the expansion of Manhaehak, the study of the University Students Buddhism Association, and understanding of Minjung Buddhism.

Key words

Han Yong-woon, 『Han Yong-woon's complete work, Korean University Student Buddhism Association, Minjung Buddhism, Jeon Bo-sam, Jeon Jae-seong.

논문투고일 : '20. 10. 9. 심사완료일 : '20. 11. 18. 게재확정일 : '20. 11. 18.